

문 대통령, 외부일정 없이 참모진 회의... 정상회담 '올인'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첫 단추' 국정 동력 집중

북 '경제 건설' 전략 노선 선회에도 비핵화 의제 고수

문 대통령, 정상회담 전 김 위원장과 첫 전화통화 예정

남북정상회담 D-4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물꼬를 터야 하는 운명의 한 주가 밝았다.

앞으로 나올 뒤인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담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운곽이 드러난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22일부터 청와대 참모진 회의 등 내부회의에만 집중, 외부 일정을 일절 접지 않고 정상회담 막바지 준비에 '올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 같은 정상 일정만 예정돼 있다"며 "외부 일정도 없다"고 전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가 될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국정의 모든 동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할 데 대한 분석을 토대로 비핵화

로드맵을 더욱 깊이 있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선인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이 요구해온 '선(先)조치'를 단행한 것을 계기로 정상회담 합의문에 더욱 수준 높은 비핵화 선언을 담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표에도 기존에 우리측이 준비해오던 비핵화 대화 준비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에 준비한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새 전략 노선으로 방향을 틀 것과 관련, 일정 부분 변화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여부는 다음 문제라서 여전히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이슈가 핵심 의제"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있는 상태여서 큰 매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핵 실험 폐기 등 결단을 내렸지만 기존 핵무기와 ICBM에 대한 폐기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 방법론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는 비핵화 등 의제에 대한 기초적인 대화를 나눌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북이 추가로 개최기로 한 고위급회담도 이번 주 초반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 이전에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정외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서울 국가정보원장의 방북도 예상된다.

6차례 핵실험 감행 '북핵 개발의 상징'

풍계리 핵실험장은 어떤 곳?

해발 2205m 만탄산 등

암반 대부분이 화강암

방사성 물질 유출 잘 안돼

북한이 지난 21일 폐쇄를 발표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6차례 핵실험이 모두 이뤄진 곳으로 북핵 개발의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이 결정서에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앞서 이곳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

년 1월 6일과 9월 9일, 2017년 9월 3일 등 모두 6번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풍계리는 해발 2205m의 만탄산을 비롯해 해기운봉, 학무산, 연두봉 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암반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핵실험 이후 발생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핵실험 장소로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첫 핵실험은 풍계리의 동쪽 경도에서, 2차·3차 핵실험은 서쪽 경도에서 이뤄졌으며, 4차와 5차, 6차 핵실험은 북쪽 경도에서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보안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의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소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6차례 핵실험으로 풍계리 주변은 방사성 물질로 크게 오염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백두산 지하 마그마 지대와 인접해 북한의 잦은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 위한 청신호'

야 "북의 '핵 폐기쇼'에 넘어가면 안돼"

'핵실험장 폐기' 여야 반응

여야는 북한이 지난 21일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은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남북 정상은 최근 핫라인을 설치했고 북한은 ICBM 발사중단과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며 "이는 앞으로 이어질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청신호"고 평했다.

이어 "이러한 평화의 분위기 속에 여전히 탄핵을 거는 것은 자우한국당 뿐"이라며 "한국당도 남북정상회담 기간에는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 핵실험장 폐쇄, ICBM 발사 중단 발표는 핵 폐기 과정에서 중대한 진전이다"며 "이에 대해 한국당이 '위장쇼'라고 비난한 것은 한반도 대화와 평화 무드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과거에도 있었던 북한의 기만에 넘어가서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은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발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 쇼'를 하고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김정은은 이번 핵 폐기 선언도 살라미 전술에 의한 위장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 폐기를 발표했어야 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의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을 닦새 앞둔 22일 오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홍보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2기 특조위, 1기와 다를 것"

이낙연 총리 목표 신항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목표 신항을 찾아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는 1기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세월호 선체 바로 세우기 작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목표 신항을 방문했다.

이 총리는 황전원 2기 특조위원과 이동근 선체조사위원 사퇴를 촉구하며 목표 신항에서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도 면담해 "2기 특조위는 그 어떤 정치적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세월호 선체 직접

이 끝나면 참사 원인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지 않을까"라며 "그러한 의문에 답하지 않으면 세월호 진상 규명은 끝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미수습자 흔적 찾기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미수습자 수습은 가족이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목표 신항 방면에 앞서 진도 팽목항과 세월호 기억의 숲을 잇달아 참배한 이 총리는 세월호 선체 보존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식후 2시간~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아!!!
▶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드립시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